

제429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13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25년10월30일(목)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2024년도 및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국회모욕 증인 고발의 건
-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상정된 안건

-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1
- 2024년도 및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국회모욕 증인 고발의 건 2

(15시47분 개의)

○위원장 신정훈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증인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계엄 관련 재판과 출석 일정이 겹치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이 종료된 후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이상민 증인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서 오늘 감사 종료 전까지 이곳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코자 합니다. 이와 같이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겠습니다.

관계 직원들은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현 시간부로 국정감사장에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오니 이를 즉각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명령장 전달)

두 분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회의 정회를 선포하고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8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정훈 황인수 증인의 고발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곧바로 429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발언 기회는 한번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 발언권 주세요.

○용혜인 위원 전체회의를 열어야 의사진행발언을 듣지요.

○이달희 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신정훈 제가 상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예.

1. 2024년도 및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국회모욕 증인 고발의 건

○위원장 신정훈 의사일정 제1항 국회모욕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인수 증인은 2024년도에 이어 2025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하면서 마스크 및 뿔테 안경을 착용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신원확인을 위한 위원장의 명령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국회모독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범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서범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서범수 위원입니다.

저도 황인수 국장에 대해서 버젓이 사진이 공개되고 또 진화위 국장이라는 어떤 직함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부분에, 사회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 와서만은 마스크라든지 뿔테 안경을 못 벗겠다, 노출을 하지 못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저도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의 황 국장 이야기대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국회를 모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문제가, 내가 노출됨으로 인해서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에게 도움을 줬던 다른 사람들의 신상에 혹시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이 부분을 저어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 벗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안전위에서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황 국장은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 시절에 자신의 모든 것을 감추고 오직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한평생을 바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 국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도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쳐 버리면 과연 누가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겠느냐, 그래서 경고라든지 퇴장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수용을 했습니다만 이걸 굳이 고발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

합니다.

○위원장 신정훈 예.

(「표결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달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그만하십시다, 우리가.

○이해식 위원 그만하시지요. 벌써 지금 2년째예요, 2년째.

○서범수 위원 한번 해 주자. 한번 주세요.

○위원장 신정훈 아니요. 그만하십시다.

○윤건영 위원 그러면 저도 할게요, 의사진행발언. 자꾸 그러지 마시라니까……

○이달희 위원 하세요, 간사님도 하시고 저도 하고.

○이해식 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국장을 하지를 말아야지. 그만둬야지.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지금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이광희 위원 나머지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이상하게 몰아가고 말이야.

○윤건영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할게요. 기록에 남기든지 해야지.

○위원장 신정훈 예.

○윤건영 위원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저기 나와 있는 증인도 그렇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국장 황인수 아니, 제가……

○윤건영 위원 증인, 조용히 하세요!

여기에, 증인명단에 사진이 버젓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때 업무는 마스크 벗고 안경 벗고, 변장 벗고 다 하시는 분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취업을 하셨으면 그에 맞게 해야지요. 지금도 국정원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증인, 조용히 하세요. 벌써 이게 몇 번째입니까? 여야가 같이 변장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다라고 수차 말을 했고 그리고 그것도 말을 듣지 않아서 퇴장 조치도 하고 설득도 하고 기관장의 입장도 물어보고,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개인 입장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신분 때문에 그런 중차대한 일이 있으면 다른 일을 알아보셔야지요. 그 일을 알아보는 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드리는 건 맞고요.

그러나 지금 이게 뭐니까? 중앙정부 기관의 고위공직자입니다. 별정직 고위급 나급 직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국회의 자료에 이렇게 버젓이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쳐 보면 다 압니다.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유독 국회 상임위장에만 나오면 변장을 하는 겁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1국장 황인수 사실과 다릅니다.

○윤건영 위원 증인!

○이광희 위원 누가 말 시켰어요!

○위원장 신정훈 자, 그 정도 하시지요.

○서범수 위원 겁박 지르지 마세요.

○위원장 신정훈 이 정도 하시지요.

○윤건영 위원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이것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야 간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범수 위원 이건 여야 간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

○이달희 위원 얘기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신정훈 이달희 위원님, 이 정도로 하시지요.

○이달희 위원 아니요, 제가 꼭 건의할 게 있습니다. 건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1분만 주세요.

○위성곤 위원 표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정훈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무려 2년 동안 우리 했지 않습니까?

○이달희 위원 아니, 건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한 번만, 한번 기회를 주셔야지요.

○이광희 위원 나머지 위원들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이달희 위원 1분만, 건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저 한 사람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빨리 표결해 주세요.

○위원장 신정훈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할게요.

○서범수 위원 한번 주세요.

○이달희 위원 건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표결은 좋은데 발언은 좀 주시지요.

○이달희 위원 표결 전에 건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정훈 자, 위원님들 간에……

○이광희 위원 이것 끝나고 건의해 주세요, 표결 끝나고.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건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박수민 위원 위원장님, 발언은 주세요.

○위원장 신정훈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갈리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이달희 위원 건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왜 마이크를 안 주시는 거예요!

○서범수 위원 갑시다.

(일부 위원 퇴장)

○이달희 위원 건의할 내용이 있다잖아요.

○옹혜인 위원 편드실 걸 편드세요, 좀.

○위원장 신정훈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달희 위원 왜 말을 이렇게 다 자릅니까? 정말……

○위성곤 위원 보호할 걸 보호하셔야지요.

○이달희 위원 아니, 보호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그러세요!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 끝나고서 하시면 되지! 이것 통과를 하고서 하세요.

○이달희 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내 양심의 자유도 없어요?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통과하고 하시라고!

○이달희 위원 내가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그러세요!

○이광희 위원 이달희 위원님, 통과하고 발언시켜 드릴게!

○이달희 위원 제가 건의할 게 있다 했잖아요!

○옹혜인 위원 적당히 하세요, 좀.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 통과되고 나서 하세요.

○이달희 위원 그러면 마이크를 줘야 건의하지요! 내가 건의할 게 있다 했지!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 끝나고서 건의하세요.

○이달희 위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다고 예단하시는 거예요!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끝나고서 건의하시라니까.

○윤건영 위원 이것 처리하고 건의하세요.

○이달희 위원 무슨 말 한 게 있다고…… 건의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님께.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건의하시면 되지요, 건의할 것은.

○윤건영 위원 끝나고 건의하세요, 그러면.

○위원장 신정훈 자, 이 문제는……

○이달희 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건의할 얘기를 줘야지.

○위원장 신정훈 발언 기회 드릴게요. 발언 기회는 표결 이후에 드릴게요.

○윤건영 위원 표결하시고 건의하시면 되잖아요. 왜 소리를 질러요!

○이달희 위원 아니, 먼저 질렀잖아요! 누가 먼저 질렀어요!

○서범수 위원 아니, 그 정도 기회를 한번 못 주는가요!

○윤건영 위원 왜 이렇게 방해를 합니까!

○옹혜인 위원 아니, 이렇게 때 쓰면 발언권 줘니까!

○서범수 위원 방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광희 위원 빨리 결과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서범수 위원 아니, 그 정도 한 번은 기회를 줘야지.

○이달희 위원 아니, 마이크 한번 달라는데 그걸…… 누가 먼저 질렀어요, 누가!

○위원장 신정훈 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세요.

○윤건영 위원 지킬 사람을 지켜야지요!

○이달희 위원 누가? 내가 지킨다고 했어요? 내가 지킨다고 했어요?

○위원장 신정훈 우리 국회의 인내는……

- 이달희 위원 누가 지킨다고 했어요!
- 옹혜인 위원 이렇게 떼 쓰면 발언권 줘니까, 국회에서?
- 이광희 위원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하나?
- 이달희 위원 결정하기 전에, 의사결정 하기 전에 주세요.
- 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의 인내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정말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말이야. 아니,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호까지 하는…… 도대체 뭘 보호하자는 거야?
- 이달희 위원 의사결정 하기 전에 주세요.
- 위원장 신정훈 의사결정 하고 드릴게요.
- 서범수 위원 아니, 여기 한 마디 하고 진행하면 안 됩니까?
- 이달희 위원 하고 의사결정…… 내가 건의사항이 있다고 하잖아요!
- 위원장 신정훈 간사님 하셨잖아요.
- 정춘생 위원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시간이 아깝습니다.
- 이광희 위원 빨리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님.
- 서범수 위원 한마디 하고 진행합시다.
- 이달희 위원 건의사항이 있다고 하잖아요, 위원장님!
- 옹혜인 위원 아니, 의사 진행 중인데 끼어 들어서 건의사항을 말씀하시면 됩니까?
- 위원장 신정훈 자, 제가……
-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얘데요. 건의사항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 서범수 위원 아니, 발언권 주고 합시다.
- 이달희 위원 발언권 주세요!
- 위원장 신정훈 충분히 했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서범수 위원 뭘 충분히 했단 말입니까?
- 이달희 위원 충분히 안 했습니다. 1명밖에 안 했잖아요.
- 위원장 신정훈 2년 동안 했습니다. 2년 정도 했어요.
- 서범수 위원 왜 이리 각박해요? 한말씀만 하도록 만들면 되지.
- 이광희 위원 빨리 통과시켜 주세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위원장님,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 이달희 위원 한 얘기만 할게요. 그러면 30초만 주세요.
- 위원장 신정훈 제가 발언 드릴게요. 발언 드릴 테니까요 표결하고 합시다.
-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30초만 주세요. 30초만 주세요.
- 서범수 위원 무슨 이야기 하는지 들어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 옹혜인 위원 표결 결과를 마무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 이광희 위원 마무리해 주세요, 위원장님.
- 위원장 신정훈 국회의 엄중함을 좀 보여 줍시다.
- 한병도 위원 위원님, 이야기하지 마시고 결론을 내 주세요. 뭘 토를 다세요?

- 이달희 위원 30초만 주세요, 위원장님.
- 위원장 신정훈 자, 위원님……
- 이광희 위원 빨리 결론을 내 주세요, 위원장님!
- 윤건영 위원 결론을 내시지요.
- 이달희 위원 30초만 주세요.
- 옹혜인 위원 표결 절차를 종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 위원장 신정훈 위원님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 이달희 위원 인정합니다. 30초만 주세요.
- 서범수 위원 기회를 한번 주셔야지요, 위원장님.
- 옹혜인 위원 국회법상 표결을 시작하면 중간에 멈출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신정훈 발언 기회 드릴게요. 발언 기회 드릴게요.
- 이달희 위원 인정하는데요, 30초만 주세요.
- 이광희 위원 아니, 빨리 결론 내 주세요.
- 윤건영 위원 아니, 표결 중간에 무슨 의사진행발언을 합니까!
- 이광희 위원 표결이 이미 진행이 됐어요.
- 서범수 위원 표결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손을 들었잖아요!
- 이해식 위원 표결 전에 하면 안 돼. 빨리 발표하고……
- 옹혜인 위원 국회법상 표결을 시작하면 멈출 수 없습니다.
표결을 종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 박정현 위원 표결하시고 하시면 되지요.
- 위원장 신정훈 이 부분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인내의 한계를 훨씬 넘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이런 정도의……
- 이달희 위원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30초도 못 줍니까!
- 위원장 신정훈 아니요, 제가……
- 윤건영 위원 위원장 말 좀 들으세요!
- 이달희 위원 예? 위원장 말?
- 위원장 신정훈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과 기회를 많이 드렸고 발언 기회를 드렸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이것 끝나고서 하시면 되지. 나가지 마세요.
- 이달희 위원 뭘 소리예요!
- 이광희 위원 끝나고 하시라니까.
- 위원장 신정훈 대단히 죄송하지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달희 위원 30초도 못 줘요!
- 서범수 위원 자, 갑시다.
- 옹혜인 위원 표결 중에 중단할 수 없다고요, 국회법상. 우길 걸 우기셔야지!
- 위원장 신정훈 재적위원 22인 중 출석 19인……
- 이달희 위원 30초도 못 줘, 이때까지 기다려 놓고!
- 이광희 위원 할 얘기도 없었네! 할 얘기도 없으면서 그런 식으로……
- 윤건영 위원 왜 방해를 합니까?

○서범수 위원 방해가 아니지요! 표결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 들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잖아요.

○윤건영 위원 그냥 나가시려면 나가시지 왜 방해를 해요?

(일부 위원 퇴장)

○위원장 신정훈 찬성 15인, 기권 4인으로 국회모독 증인 고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광희 위원 발언하세요, 이달희 위원님! 시간 드릴 테니까 발언하시라고!

○위원장 신정훈 그러면 전체회의 정회를 선포하고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9시0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22인)

고동진 권칠승 김성희 모경중 박덕흠 박수민 박정현 서범수 신정훈 양부남
용혜인 위성곤 윤건영 이광희 이달희 이상식 이성권 이해식 정춘생 주호영
채현일 한병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합의회의록